

## 루체른 카펠교

**스위스**는 이 세상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어 하는 곳 첫 번째로 꼽는 나라이다.

꿈으로 상징되는 고풍스런 도시 수도 베른, 레만호의 낭만이 넘치는 제네바와 로잔,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의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친근한 마을 인터라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오르내리는 취리히...

스위스 어디를 가든, 잘 정비된 도시와 어울려 멀리 알프스 고봉에는 보기 좋은 만년설이 쌓여 있고 산 중턱 아래로는 맑은 호수를 낀 거대한 녹색의 정원이 펼쳐진다. 순해 보이는 소떼들은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며 한가로이 풀을 뜯고, 푸르른 자연 속의 통나무집들은 테라스마다 예쁜 꽃들을 욕심껏 안고 있다. 멀리 혹은 가까이로 보일 듯 말 듯 이어진 산길을 따라가면 이내 천국에라도 오를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산자락 어디에서인가 금세라도 열네 살 소녀 「하이디」가 뛰어나올 것 같은 동화 같은 풍경들은 여행자의 가슴에 고스란히 각인되고, 다음에도 유럽에 간다면 자연스레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곧 스위스인 것 같다.

이러한 스위스의 모든 것을 아우른 도시가 있다. 「루체른」이다. 이곳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루체른이 곧 스위스”라고 말한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에는 백조가 노니는 맑은 호수가 있고, 산악열차가 관광객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산이 있으며, 시내 곳곳에는 수많은 역사유적과 전설이 남아있다. 루체른 사람들에게겐 스위스에서도 이처럼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루체른을 대표하는 카펠교는 1300년대에 세워진 이 도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다. 200미터가 넘는 목조의 긴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며, 다리 양옆은 사시사철 꽃으로 장식되고 예쁜 지붕까지 얹어져 있다.

다리 속을 걷다보면 지붕틀 삼각형 부분을 따라 이곳의 역사와 민속 등을 담은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군데군데 불에 그을린 흔적을 볼 수 있다. 1993년 화재 때 다리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복원할 때 남겨둔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 무심코 피우다 만 담배를 버렸고, 이로 인해 700년도 넘는 다리와 300년도 더 된 소중한 그림들이 한 순간에 소실되었다. 당시 다리 위에 걸린 그림은 모두 1백 16점이었는데 이 중 85점이 불에 탔다고 하며, 현재 걸려 있는 65점 가운데 일부는 복원된 것이고 일부는 원본으로서 까맣게 그을린 채 그대로 걸려 있다.

루체른이 자랑하는 카펠교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화재의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불에 탄 그림들을 그대로 보존해 둔 것은 최근 낙산사와 승례문을 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다. 복원 후 10여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이끼 낀 세월의 흔적은 느낄 수 없었지만, 문화재를 아끼는 그들의 정성이 스며있는 카펠교는 마치 수백 년 전 건축당시의 모습인양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